

한국어의 양태 표현 교육 연구 :
한국어 ‘-(으)ㄴ 수 있다’ 와 중국어 ‘能’ 의 대조를 중심으로
강 비)
중국 산둥공상대학교

< 요 약 >

양태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이다. 언어마다 사용된 문장은 양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양태는 인식양태와 의무양태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양태 이론을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양태의 개념과 하위분류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본격적인 양태 표현의 의미, 기능 대조를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 실현 양상을 밝혔다. 또한, 한국어의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양태 조동사 ‘能’을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대조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태 표현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양태 표현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서 한국어 교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많은 문법 항목이 이 양태에 속한다. 한국어의 양태 표현은 유사점이 많고 의미와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학습했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문법이다. 따라서 본고는 대조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한국어 양태 표현의 실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양태 표현의 문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양태, 심리적 태도, 양태 조동사, 문법 항목, 교수·학습 모형

1) 교신저자, jiangfei-007@163.com

I. 서론

인간은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 또 언어를 통해 우리의 의견도 나타내고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도 나타낸다. 이러한 명제 내용(proposition content)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관심과 심리적 태도가 ‘양태(modality)’로 표현된다. 여기에는 명제의 ‘추측’, ‘소원’, ‘필연성’, ‘개연성’ 등의 판단이 포함된다. 양태 표현은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 양태 표현은 다양한 언어적 형식으로 실현되고 사용될 때 시제, 인칭 등 통사적 제약에 따라 그 구조와 형태에 변화가 많이 생긴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사용제약을 모르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쉽게 범하게 된다. 또한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도 많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 학습 자료들에서 각 양태 표현들의 의미 차이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한국어 학습자들이 양태 표현의 사용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양태의 하위분류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학자마다 양태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그 하위분류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Lyons(1977)의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의 분류 체계를 취하여 한국어 양태 표현 ‘-(으)ㄴ 수(도)있다’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양태 조동사 ‘能’을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어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는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 그리고 동적 양태로 모두 쓰이고 개별 양태 기능 범주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와 대응되는 중국어의 양태 조동사 ‘能’은 『汉语词汇的统计与分析』(1985)에서 제시한 중국어 상용 조동사의 사용빈도가 높은 조동사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양태 조동사 ‘能’을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대조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양태 표현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양태 표현 습득에 있어서 어려움을 예측하고 오류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본론

1. 양태의 개념과 하위분류

1) 양태의 개념

언어학에서 양태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난다. Jespersen(1924: 425)은 서법(mood)을 ‘문장의 내용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는 어떤 심리적 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동사의

형태에 나타날 경우에만 ‘법’ 이다” 라고 밝히고 있으나 통사적 범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개념적 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때 ‘개념적 법’을 본고에서 말하는 양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yons(1977:452)은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국어학에서 양태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범주화하였는데, 장경희(1985:9)에서 양태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고, 고영근(1986)에서는 양태를 ‘서법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의미 영역과 기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의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 범주’로 보았다. 김지은(1998)은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라고 하였으며, 이선웅(2001)에서는 ‘화자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문장 내에서 표현하는 심리적·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박재연(2003)에 의하면 ‘화자의 태도’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양태의 기본 속성을 ‘화자의 주관적인 한정(qualification)’으로 보아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국어학에서 양태는 서법과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에 양태와 서법을 상하위의 관계로 보는 논의들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정수(1995)에서는 서법을 화자가 말할 내용이나 청자에 대해 갖는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로 보고, 필요에 따라 양태와 문체법으로 하위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양태를 서법의 하위범주로 기술했다. 이에 반해 이선웅(2001)에서는 양태가 의미적 개념인 양태성과 문법적 개념인 양태법을 아우르며 서법을 양태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밝혀 양태를 서법의 상위로 보았다. 또한 양태와 서법을 독립적인 범주로 보는 연구도 있다. 고영근(1986)에서는 ‘화자가 사태와 대결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수적 의미가 일정한 동사의 형태로 구현되는 문법 범주’를 서법으로, ‘서법 범주나 기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의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 범주’를 양태로 보았다. 이에 반해 장경희(1985)는 이 둘을 각기 다른 문법적 범주로 보고, 화자가 사건 그 자체에 대해 갖는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소와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갖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독립적인 범주로 설정하여 양태와 서법을 구분하였다. 박덕유(1998)는 화자의 주관적인 심리 작용의 양상에 관한 언어적 표현을 서법으로 보았고, 이 서법이 학자에 따라 양태, 양상, 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양태와 서법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나 화자가 나타내는 태도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구분되어 사용되므로 이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장경희(1985)에서 마찬가지로 서법과 양태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어학에서도 양태에 대한 개념은 상술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贺阳(1992)은 양태를 화자가 문법적 형식을 통해 명제에 대한 주관적 의식으로 보았다. 温锁林(2001)에서는 양태를 화자의 명제에 대한 감정과 태도로 보았고, 彭利贞(2005)에서는 양태를 화자가 명제의 진리치나 사건의 현실성 상태로 정의하였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양태의 개념은 학자마다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Lyons(1977)가 정의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양태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양태의 개념을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로 정의한다.

2) 양태의 하위분류

양태의 분류 방법은 크게 '이분법'과 '삼분법'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양태에 대한 분류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1>과 같다.

<표 II-1> 기존의 양태에 대한 분류 방법

유형	연구자	분류 체계
이분법	Lyons(1977)	인식 양태, 의무 양태
	박재연(2003)	인식 양태, 행위 양태
	김지은(1998)	주어 중심 양태, 화자 중심 양태
	엄 너(2009)	인식 양태, 비인식 양태
	문병열(2006)	명제 양태(인식 양태), 사건 양태(당위/동적/평가 양태)
삼분법	Palmer(1979)	인식 양태, 의무 양태, 동적 양태
	Bybee(1994)	인식 양태, 동작주 지향적 양태, 화자 지향적 양태
	이효정(2004)	인식 양태, 의무 양태, 평가 양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태의 가장 보편적인 분류는 두 가지 유형 이분법과 삼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양태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분류 유형은 Lyons(1977)에서 제시되었던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로 분류된 이분법이다. 인식 양태는 명제의 가능성(possibility), 개연성(probability), 확실성(certainty) 등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에 한정되어 있다. 의무 양태는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자가 수행하는 행동의 필연성이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으면 허용이나 의무를 나타낸다. 박재연(2003)에서는 전통적 이분법을 존중하면서 의무 양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적으로 '의무양태'라는 용어 대신 '행위양태'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의무양태란 용어는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만 이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도', '소망', '능력'의 의미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행위양태'가 적합하며 이는 모두 주어의 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상술하였다. 김지은(1998)은 심리적 주체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화자중심 양태와 주어중심 양태로 구분하였다. 화자중심 양태는 전통적인 인식 양태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명제 실현에 대한 화자의 '희망, 바람, 유감' 등의 심리적 태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주어중심 양태는 선행 용언이 가리키는 행위나 상태와 관련하여 주어의 선행 행위에 대한 '의도', '바람', '능력', '의무' 등 의미를 포괄한 범주이다. 이는 양태 용언의 의미 영역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엄너(2010)는 전통적인 양태 분류법을 따랐다. 의무 양태를 인식 양태에 대응되는 비인식 양태로 대체하여 양태를 인식 양태와 비인식 양태로 분류하였다. 인식 양태는 명제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므로 명제 실현의 가능성, 당연, 근접 등의 의미로 하위분류하였다. 이에 비해 비인식 양태에는 명제가 기술하는 행위의 규범성에 대한 화자의 의무, 허용, 금지와

같은 사회적 판단이 포함되며, 명제가 기술하는 행위의 가능성에 동작주의 희망이나 ‘능력’, ‘의도’, ‘의지’ 등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문병열(2006)은 형태론적 유형론의 관점에서 분류하였으며, 1차적으로 양태를 명제 양태와 사건양태로 나누었다. 2차적으로는 사건 양태는 당위 양태, 동적 양태, 평강 양태로 나누었다. 당위 양태는 ‘의무’, ‘허가’로 나눌 수 있고, 동적 양태는 ‘동적’과 ‘의지’로 나눌 수 있으며, 평가 양태에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어의 새로운 양태 체계를 확립하였고 한국어의 보문 구성 양태 표현 각각의 의미와 기능을 기술하였다.

삼분법 분류는 인식 양태를 제외한 나머지 양태를 다시 두 분류로 나누는 유형들이다. Palmer(1979)에서는 양태 분류의 이분법을 보완해서 인식 양태, 의무 양태, 동작 양태까지 포함시켰다. 인식 양태를 별도의 범주로 세우고, 인식 양태를 제외한 의미를 수행성(performativity)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의무 양태로, 후자는 동작 양태로 구별하였다. Bybee(1994)에서는 인식 양태 제외한 새로운 차원이 ‘동작주 지향적 양태’, ‘화자 지향적 양태’ 용어를 도입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Palmer(1979)의 분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작주 지향적 양태’는 동작주에 대한 개관적인 조건을 기술하는 ‘의도, 희망, 능력’이며, ‘화자 지향적 양태’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조건을 부과하는 ‘명령, 금지, 기원’ 등이 말하는 것이다. 이효정(2004)은 역시 양태를 삼분법 입장을 취하여 의무 양태, 평가 양태, 인식 양태로 나누었다. 의무 양태는 명제 실현 여부에 대한 의무이고, 평가 양태는 기준에 따른 명제 내용 평가이며, 인식 양태는 명제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다.

본고는 양태의 개념정리에 있어 Lyons(1977:452)와 입장을 같이하여 전통적인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의 이분법적인 관점을 따르고자 한다.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가능성, 필연성과 관련된 인식 양태에는 ‘추측, 가능성, 당연, 정도’ 등이 포함되고,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자가 수행하는 행동의 필연성이나 가능성과 관련된 의무 양태에는 ‘능력, 희망, 의도, 의지, 의무, 허용’ 등이 포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양태의 범주에 대해서는 여러 분류가 있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와 중국어 양태 표현 ‘能’의 대조 분석인데 이와 관련된 ‘인식 양태’에 한정하여 고찰할 것이다. 인식 양태는 상술한 양태의 한 범주에 속한다. 인식 양태에 대해 Palmer(2001:24-26)는 화자가 명제의 사실적 사태(factual status)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불확실성(uncertainty)을 표현하는 추론(speculative), 관찰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는 연역(deductive),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지식으로부터 추측을 하는 가정(Assumptive)으로 구분하였다. Bybee(1994:179)은 인식 양태는 단어에 적용되고 명제의 진위에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해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인식 양태가 가능성(possibility), 개연성(probability), 추론된 확실성(inferred certainty)으로 표현된다고 밝히고 있다.

2. 한·중 양태 표현의 양상

한국어에서 양태의 대표적인 문법 형식은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그리고 복합구성으로 된 양태 표현이 있다. 중국어 양태 표현의 대표적인 문법 형식은 조동사와 어기사가 있다. 제2언어 습득에서 목표어와 모어의 대조는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 표현 체계의 형식적 대응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한·중 언어의 양태 표현 양상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II-2>와 같다.

<표 II-2> 한국어와 중국어 양태 표현의 양상 대조

양태의 양상	한국어	중국어
음운론적 요소	강세, 억양, 휴지	강세, 억양, 휴지
어휘적 요소	동사, 형용사, 부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문법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구성: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 복합구성: 관형사어미+의존명사+이다 관형사어미+의존명사+형용사 관형사어미+형용사/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동사(助動詞), ▶ 어기사(語氣詞)
문체적 요소	도치, 생략	도치, 생략

1) 한국어 양태 표현의 양상

<표 II-2>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 표현은 음운론적 요소, 어휘적 요소, 문법적 요소, 문체적 요소의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한·중 양국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은 문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로 한국어 양태 표현의 문법적 요소와 중국어 양태 표현의 문법적 요소 그리고 중국어의 어기사(語氣詞)를 살펴보도록 한다. 예문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a. 비가 오겠다.
 b. 지금 식당에 가면 밥이 없을걸!
 c. 요즘 바쁘가 보다.
 d. 내일 수업 안 할 거 같다.
 e. 사람 많아서 오래 기다릴 수(도) 있어요.
 f. 비가 내릴 모양이다.

- g.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 h.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기가 쉽다.

위의 예문(1)은 추측의 의미를 지니는 양태 표현 예문들이다. 그 중에서 먼저 (1a)는 선어말어미 '-겠-'을 이용해서 양태 표현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겠-'은 미래의 사건이나 사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서 화자가 지금 '날씨가 흐리다'를 근거하여 '비가 오겠다'는 명제 실현의 가능성을 추측하는 의미로 쓰였다. (1b)에서는 어말어미 '-(으)르 걸(요)'를 이용해서 양태의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1c~1e)에서는 각각 복합구성 '관형사어미+형용사/동사'의 형식인 '(으)ㄴ/는 가/나 보다', '(으)ㄴ/는 것 같다', '-(으)르 수 있다'를 이용하여 인식 양태인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화자가 명제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입각해서 추측하는 것이다. 예문(1f)는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이다' 형식으로 화자가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짐작을 드러낸다. (1g)에서는 '관형사어미+형용사/동사'의 형식인데 '-을지도 모르다'를 통해 명제가 가리키는 상태의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추측이다. (1h)에서는 형용사 '쉽다'와 '-기(가)-'와 결합하여, 양태의 추측을 표현하는 예문이다.

2) 중국어 양태 표현의 양상

<표 II-2>에서 보듯이 중국어에서 양태 표현 대표적인 문법 형식은 조동사(助動詞)와 어기사(語氣詞)라고 할 수 있다. 조동사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거나 그의 어법 특징이나 품사 종류를 인식하는 시각에 따라 명칭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동사는 가능, 필요, 당위, 희망이나 바람 등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²⁾. 어기사는 어기를 표시하는 허사(虛詞)이고, 늘 문장 말이나 문장 중의 휴지하는 곳에 쓰이며 종종 어기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1) 중국어 양태를 표현하는 조동사(助動詞)

(2) '要'

- a. 要下雨了. 비가 오겠다.
- b. 可能, 要来台风了. 아마, 태풍이 올 것 같다.
- c. 太感动了, 快要留泪了 °감동을 받아서 눈물 날 것 같다.
- d. 太冷了, 要冻死人了 °추워서 얼어 죽겠다.

2) 조동사의 분류 기준은 연구자마다 약간씩 다른 의견이 있는데 연구를 분석하면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丁聲樹(1961)에서는 '가능', '의지', '필요'로 해석되고, (2) 胡裕樹 (1981)에서는 주관적인 바람, 객관적인 요구로 나눈다. (3) 馬慶株 (1992)에서는 가능동사A, 필요동사, 가능동사B, 희망동사, 추측동사, 허가동사로 나눈다.

위의 예문(2a~b)는 중국어 조동사 ‘要’를 이용하여 화자가 각 문제에 대해 추측하는 문장들이다. 화자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서 적어도 50% 이상의 확신이 있음을 나타낸다. (2c~d)에서는 ‘要’를 이용해서 곧 발생한다는 예측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 날 지경’이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상황에 쓰였지만 화자가 진짜 그런 것은 아니라 과장적 예측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會/能

- a. 明天會很冷的 °내일은 날씨가 많이 추울 것이다.
- b. 芝敏化妆的话會很漂亮의 °지민이가 화장하면 아주 예쁠 것이다.
- c. 朴教授明天能來 °박 교수님께서는 내일 오실 수 있다.

예문 (3)은 ‘會/能’을 이용해서 양태를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화자가 각각 ‘내일은 날씨가 많이 추울 것이다’라는 추측, ‘지민이가 화장하면 아주 예쁠 것이다’라는 추측, ‘박 교수님께서는 내일 오실 것이다’라는 양태 표현한 것이다.

(2) 중국어 양태를 표현하는 어기사(語氣詞)

중국어에 어기사(語氣詞)로 양태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기사는 어기를 표시하는 허사이고, 늘 문장 말이나 문장 중의 휴지하는 곳에 쓰이며 종종 어기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중국어의 대표적인 어기사는 ‘的, 了, 么, 呢, 吧, 啊’ 등이 있다.

- (4) a. 這裡可以吸煙吧? 여기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
- b. 今天不上班吧? 오늘은 근무 안 하지?

예문 (4)는 어기사(語氣詞) ‘吧’를 이용해서 양태를 나타낸 예문들이다. ‘여기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와 ‘오늘은 근무 안 하지?’의 예문은 알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어기에 ‘吧’를 붙여서 양태의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중국어 양태 표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한국어에서 양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법 형식에는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 그리고 복합 구성으로 된 양태 표현이 있으며, 중국어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법 형식에는 양태 조동사(助動詞)와 어기사(語氣詞)가 있다.

3. 한국어 ‘-(으)르 수 있다’ 와 중국어 ‘能’ 의 대조 분석

1) 분석 기준에 관한 논의

대조 분석이란 두개의 개별 언어를 상호 대조하여 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조 분석은 학습자가 외국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를 과학적으로 기술하여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교, 분석하며 문형 연습을 통해 차이점을 이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한 · 중 양태 표현 대조분석의 기준부터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Larsen-Freeman(2003)에서는 ‘삼차원의 문법 틀 (A three-dimensional grammar 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는데 ‘삼차원’에는 ‘형식(form)-의미(meaning)-화용(use)’의 3차원적 문법 교육 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1]와 같다.



[그림 III-1] 삼차원의 문법 틀

문법의 세 개 영역은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층위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문법 틀을 가진다. 즉, 형식과 의미 그리고 화용의 3차원적 양상의 상호적용을 통한 맥락 의존적 교육 방법으로서 ‘하나의 표현 형식’에는 [일정한 문법적 형태+일정한 의미+특정한 사회적 담화의 사용 맥락]등이 결합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첫째, 문법 형식의 정확성, 둘째, 전달 의미의 유의미성, 셋째, 사용 맥락에서의 적절성 등을 통한 언어 능력의 함양을 지향 목표로 설정한다. 즉 문법 기반 기능 통합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문법이란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에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언어 형식’이라는 3차원적 정의가 가능하며, 이는 ‘문법 교육이 반드시 사용 장면의 맥락 속에서 언어 형식과 의미를 연계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점을 시사한다. 틀을 기준으로 이를 ‘양태 표현’이란 구체적인 문법 범주에 적용하여 해당 문법의 지식 요인에 대한 분석틀을 다음 <표 III-1>과 같이 제안한다.

<표 III-1> 양태 표현의 지식 요인에 대한 분석 틀

영역	분석 내용	
의미	인식 양태	판단의 확실성 정도
		판단의 근거: 간접적 정보, 직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
		판단의 주관성 정도
통사	구조 및 형태 변화	
	인칭, 시제, 서법의 제약	
	선행 용언의 제약	
	다른 성분과의 결합	
화용	화자 입장	의견을 완곡하게 제시하기
		책임 회피하기
	청자 입장	부담감 덜어 주기
		충격이나 체면 손상을 완화하기

2) 의미적 대조

양태표현 '-(으)르 수 있다'는 관형사형 어미 '-(으)르'과 의존 명사 '수' 그리고 동사 '있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표 III-2>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의 의미

학자	양태 의미 유형
김지은(1998)	의무, 허용, 능력
박재연(2003)	인식양태, 행위양태(능력)
임동훈(2003)	능력, 허락, 인식적 가능성
宋永圭(2004)	동적양태(능력), 의무양태(허가), 인식양태(가능)
안주호(2006)	인식 양태(예측, 추측, 가능성, 확실성) 의무 양태(능력, 의지, 의무, 허가)

김지은(1998)에서 '-(으)르 수 있다'를 3분류로 '의무, 허용,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박재연(2003)에서는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나누어 고찰했다. 임동훈(2003), 宋永圭(2004), 안주호(2006)에서는 Palmer(1979)에서 정의한 인식 양태(추측), 의무 양태(허가), 동적 양태 (능력)와 같은 양태 유형을 포괄하였다.

(5) a. 내일이면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도착할 수 있다.

明天我的父母能到韩国

b.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올 수 있다.

坐飞机两个小时就能到 °

예문(5a) '내일이면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도착할 수 있다', (5b)'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올 수 있다' 모두 명제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에 선행하는 용언은 일반적으로 행위 동사들이다. 예문에서 보듯이 이때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은 '能'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의 '能' 는 한국어의 '-(으)르 수 있다' 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되는 중국어 양태 조동사이다. 그러나 한국어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는 '우발성(偶發性)' 의미를 표현할 때 중국어 조동사 '能' 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 양태 조동사 '可能' 과 대응된다.

(6) a. 내일 못 일어나면 내가 서울에 안 갈 수 도 있다.

明天起不来的话, 我可能就不去首尔了 °

b. 반지를 끼는 것을 보니 그녀는 결혼했을 수 도 있다.

看戒子她可能结婚了 °

c. 내일 내가 집에 없을 수 도 있다.

明天我有可能不在家 °

예문(6)은 문장 전체 내용에 대한 화자의 막연한 추측과 연관된 불확실을 의미한다. 이를 '우발성(偶發性)' 의미라고도 한다. 즉 명제 내용의 실현 확률이 50%만 있다. 위의 '내일 못 일어나면 내가 서울에 안 갈 수 도 있다, 반지를 끼는 것 보니 그녀는 결혼했을 수도 있다' 등 예문처럼 명제 내용이 실현될 확률과 실현되지 못할 확률이 50:50이다. 이럴 때 중국어 양태 표현 '能' 과 대응될 수 없고, 양태 표현 '可能' 과 대응된다.

지금까지 한국어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조동사 '能' , '可能' 이 광범하게 사용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의 의미적 기술에서 보았듯이 '能' 는 주체와 관련된 일반적인 가능성 의미에 쓰이고 '可能' 은 문장 전체에 대한 화자의 막연한 가능 즉 '우발성'의 의미에 쓰인다. 따라서 '能' 는 '可能' 에 비하여 명제 실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3) 통사적 비교

여기서는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와 대응되는 중국어 '能' 을 중심으로 주로 ①주어/용언의 제약, ②시제의 제약, ③서법의 제약의 세 가지 측면에서 통사적 특성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주어/용언의 제약

한국어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는 앞에서 의미적 특징을 서술한 바와 같이 화자가 명제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으)르 수 있다'는 주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가능 의미를 나타낼 때 주어의 사용에 제약이 없다(7a~c). 주어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행위자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선행용언으로는 동작동사만 아니라 상태 동사일 경우도 가능하다(7d~e). 그러나 1인칭, 2인칭 주어가 상태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7f~g).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 (7) a. 나는 내년이면 졸업할 수 있다. (1인칭 주어)
- b. 너는 내년이면 졸업할 수 있어? (2인칭 주어)
- c. 철수는 내년이면 졸업할 수 있다.(3인칭 주어)
- d. 언니가 학교 다녔을 때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다.
- e. 교수님 바쁘실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해봐.
- f. 나는 학교 다녔을 때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다.
- g. 너는 학교 다녔을 때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다.

(7a~c)처럼 각각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철수'는 주어로 화자가 '내년이면 졸업하다'는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예문(7d~e)에서 '많다'와 '바쁘다'는 상태 동사이며 주어는 3인칭 '언니'와 '교수님'이다. 그러나 주어가 1인칭 2인칭이 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7f~g)에서 1, 2인칭 주어는 상태성 용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효정(2004)에 따라 자신의 상태는 추측할 수 없으며, 청자에 대한 상태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막연한 추측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에 부연 설명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의 인칭과 상관없이 상태성 용언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예문(8)과 같다.

- (8) a. 논문 잘 쓰면 내년에 나도 졸업할 수 있다.
- b. 공부 열심히 하면 내년에 너도 졸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개연성 추측과 가능성 추측 의미를 있는 '-(으)ㄴ 수 있다'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能'은 인칭 제약 없이 동작성 용언과 상태성 용언에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예문(9)와 같다.

- (9) a. 这件衣服(我, 你, 他)穿的话能很好看 °
 나/너/그는 이 옷을 입으면 예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b. 听到那样的话, (我, 你, 他)能很生气 °
 나/너/그는 그런 말 들으면 화날 수 있다.

(2) 시제의 제약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는 추측 의미를 나타낼 때 위치의 제약 없이 과거 시제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용언의 뒤에서나 양태 표현 자체의 뒤에서나 과거 시제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음예문(10)과 같다.

- (10) a. 철수가 일등이 됐을 수 있다.
 b. 철수가 일등이 될 수 있었다.

위의 예문 (10)은 명제의 가능성에 대한 과거 시제와의 결합 양상인데 미세한 의미 차이를 갖는다. (10a)는 ‘철수가 일등이 됐을 수 있다’는 명제에 과거 시제가 붙은 경우로서 이는 화자가 주체의 행위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경기 전이나 경기 진행 과정을 보면서 경기 결과가 판정나지 않았을 경우 막연하게 추측하는 장면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만약 경기 결과가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가능성 낮은 ‘-(으)르 수 있다’는 사용한다면 어색할 것이다. (10b)는 명제의 가능성 즉, ‘철수가 일등 될 수 있다.’ 에 과거 시제가 결합된 경우이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약세에 놓인 경기 과정을 지켜보면서, 혹은 경기 후 패한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장면에서 사용된다. 또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과 ‘-(으)르 것이다’와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그것은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 예문(11)과 같다.

- (11) a. 이번 시험에 철수가 일등이 될 수 있겠다.
 b. 이번 시험에 철수가 일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 이번 시험에 철수가 일등이 될 수 있다.

(11a,b)에 비해 (11c) 추측의 의미가 더 약하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으)르 수 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能’ 과 중국어에서 시제나 상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了, 着, 过’ 가 결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고 한다.

양태표현 ‘-(으)르 수 있다’는 중국어 양태 조동사 ‘能’ 과 대응된다. 이외에도 중국어 양태 조동사 ‘可能’ 과 대응된다. ‘可能’ 은 중국어에서 명제 실현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양태 조동사이며 세 가지 동태 조동사 ‘了, 着, 过’ 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이것은 가능성이 가장 낮은 양태 조동사인 만큼 과거 시제나 상을 막연하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예문(12)와 같다.

- (12) a. 可能是你看错了 °아마, 네가 잘 못 보았을 수 있다.
- b. 妈妈可能在等着我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 c. 他可能喜欢过她 °그는 그녀를 좋아했었을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보다 높은 '개연성'을 나타내는 '能' 는 동태 조사 '着' 와 결합할 수 없고 '了' 와 결합이 가능한데 이때의 '了' 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기보다 '상태의 변화' 에 가까운 '了' 에 속한다. 예를 들자면 예문(13)과 같다. '能' 는 과거의 시제, 상대적 의미를 나타내는 '过' 와 결합하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예를 들자면 아래 예문(14)와 같다.

- (13) 看看说明书的话, 就能知道使用方法了 °설명서를 읽어보면 사용방법을 알 수 있다.
- (14) 也许, 你也能听说过他 °아마, 그의 얘기는 너도 들어봤을 수 있다.

(3) 서법의 제약

- (15) a. 내일 비가 올 수 있다.
- b. 내일 비가 올 수 있을까요?
- (16) a. 明天能下雨 °내일 비가 올 수 있다.
- b. 明天能下雨吗? 내일 비가 올 수 있을까?

위의 예문(15)에서 보듯이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는 인식 양태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은 실현될 수 없고, 평서문과 의문문만 실현될 수 있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能' 역시 청유문과 명령문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평서문이나 의문문 실현 양상에서 '能' 은 일반적인 '가능성' 의 판단이므로 평서문, 의문문 모두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예문(16)과 같다.

4) 화용적 대조

여기서는 먼저 화용적 지식의 이해부터 보겠다. 이창덕 외(2000)와 이성범(2015)에 의하면 Lakoff(1973)는 언어 사용의 능력 규칙을 '명료하라'와 '공손하라'로 요약하였다. 그는 담화의 주요 목적이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것이라면 전자를, 대인 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후자를 중시해야 하며, 이 양자가 충돌할 때 공손함이 명료함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담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담화의 '공손성' 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 양태 표현이 어떤 발화 상황에서 어떤 화행 기능을 하는지, 중국어 조동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7) a. 선생님 죄송한데 내일은 제가 못 갑니다.

老师, 对不起, 明天我不能去了

b. 선생님 죄송한데 내일은 제가 못 갈 수 있습니다.

老师, 对不起, 明天我可能不能去了 °

화자는 실제 담화 상황에서 인식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완곡어법으로 사용한다. 예문(17)은 모두 선생님께 허락을 받는 상황이지만 (17a) ‘선생님 죄송한데 내일은 제가 못 갑니다’ 보다는 (17b) ‘선생님 죄송한데 내일은 제가 못 갈 수 있습니다’. (17a)에서 화자가 내일은 분명히 못 가는데도 자신의 의견을 선생님께 완곡하게 제시한다. 가능성을 의미하는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를 사용해서 공손하고 완곡한 표현을 한다. 이때 중국어에서 양태 조동사 ‘能’ 을 쓸 수 없고, ‘可能’ 을 덧붙여 완곡함을 나타낸다. 이외에는 선행 용언의 부정에 ‘-(으)ㄴ 수 있다’의 의문문을 사용하면 수사적 의문문을 만듦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강세어법의 화용 기능을 한다.

(18) a. 그는 미국에서 십년 넘게 살았는데 영어를 못 할 수 있겠어요?

他在美国生活了十几年, 怎么能不会英语呢 °

b. 그는 부자인데 차가 없는 일 있겠어?

他那么有钱, 哪能没有车呢?

예문(18)은 단순히 명제의 진위 여부를 묻는 의문문이 아니라 수사적 의문문의 성격을 띤 긍정문이다. 중국어 ‘怎么能不’와 ‘哪能没’ 등을 대응할 수 있다.

(19) a.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学生们 不能不感谢教授给的恩德 °

b. 우리는 내일 만나지 않을 수 없다.

我们明天不能不见面 °

예문(19)에서 보듯이 ‘-(으)ㄴ 수 있다’는 이중 부정인 ‘-지 않을 수 없다’를 사용하여 강한 긍정 즉 어떤 행위의 ‘당위성’을 나타낸다. ‘不能不’ 뒤에 ‘감사하다’, ‘만나다’등 동사를 붙이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 하면 어떤 행위를 꼭 해야 하는 의미를 드러낸 이중 부정문이다. 중국어도 ‘不能不’ 의 이중 부정 형식을 취하여 긍정을 나타낸다.

4. 한국어 양태 표현의 교수·학습 설계

1) 교수·학습 목표

문법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김영만(2005:92)에 의하면 Canale & Swain(1980:1-47)과 Canale(1983:2-27)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문법적 능력은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문법 지식 및 어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사회 언어 능력은 감화가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능력을 말한다. 즉,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 사람들의 관계, 상호작용 등에 대한 이해를 등의 의미한다. 담화 능력은 대화나 텍스트에서 전달된 의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며 문장 간의 구성과 관계를 다룬다. 전략능력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화 참여자가 사용하는 담화 전략을 말한다. 상술한 문법의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 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하나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적 지식과 어휘적 지식만을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는 교실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서 상황에 따른 화용론적 기능을 파악하여 문법 지식을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에 따라 본고의 양태 표현의 교수·학습 목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태 표현의 통사적 특징과 제약을 파악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이해하고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을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양태 표현의 화용적 특징을 이해하고 실제 담화 맥락에 맞도록 양태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통사적 측면의 교육

PPP(제시 훈련) 수업 모형이란 의미 그대로 바른 언어 사례를 제시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 바른 언어 자료를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제시(presentation)-연습(practice)-발화(production)’의 3단계 모형으로 진행한다. 권낙연(2010)에서 PPP모형의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 단계에서는 교사가 설명에 의한 문법 내용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목표 문법의 통사적 규칙과 제약, 의미 등 문법 지식을 명확히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언어 상화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설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연습(practice)단계에서는 정확한 형태에 초점을 두고 언어 항목을 연습시켜 목표 언어 항목을 내재화시키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 항목을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전체 혹은 짝을 이루어 반복하여 연습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언어를 사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발화(production) 단계에서는 교사의 설명과 형태적 연습을 바탕으로 의미와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적 산출 활동

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목표 언어 항목을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학습 활동은 역할극, 모방활동, 의사소통을 위한 과업 등이 해당된다.

PPP모형에 의한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의 통사적 측면의 교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

▷목표: '-(으)르 수 있다'의 통사적 규칙을 이해 할 수 있다.

(1) 제시단계

▶상황 제시: 학생들에게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물어보고, 교사는 '-(으)르 수 있다'를 사용하여 문법 항목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예) 교사: 겨울 방학하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규칙 제시:

명제에 대한 '가능성'의 판단을 나타낸다.

서법제약: 청유문, 명령문(×)

평서문, 의문문(○)

인칭 제약: 주어의 사용에 제약 없다.

용언 제약: 동작동사와 상태동사 모두 사용 가능. 그러나 1인칭, 2인칭 주어가 상태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하지만 앞에 부연 설명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의 인칭과 상관없이 상태성 용언은 사용될 수 있다.

(2) 연습단계

▶반복 연습을 통해 '-(으)르 수 있다'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연습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언니가 그런 말 들으면 _____.(화나다)

(2) 내일 비가 _____(오다).

(3) 여덟 시쯤 박 선생님 학교에_____.(도착하다)

▷상황에 맞는 말하기 연습: 반복 연습을 통해 익숙해진 다음, 상황에 맞게 문법 항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자신과의 유사한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예): 교사: 여러분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학생: 네,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3) 발화단계

▶ 의사소통 중심 활동:

▷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내일 약속 있는 것 알지요?

나: 네, 그런데 길이 막히면 조금 _____.(늦다)

(2) 가: 이번 주말에 같이 서울에 갈수 있어요?

나: 별일이 없으면_____.(가다)

3) 의미적 측면의 교육

Harmer(2007)은 ESA 직성 모형, 즉 몰입(Engage)-학습(Study)-활동(Activate) 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PPP 모형을 확대하여 학습자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강조한 방법이다. ESA 교수 모형의 몰입(Engage)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학습(Study) 단계에서는 언어에 초점을 두고 구조나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ESA의 학습 단계는 다양한 과제나 활동으로 일방향적인 교수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는 것이 목적이다. 활동(Activate) 단계에서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문장을 활용함으로써 목표 문법을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ESA 직성 모형에 의한 ‘-(으)르 수 있다’의 교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중국인 중급 학습자

▷목표: 다양한 추측 양태 표현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문법: -(으)르 것이다, -(으)르/ㄴ/는 것 같다, -나/ㄴ/은가 보다, -(으)르 수 있다, -겠다

(1) 몰입 단계

학생들에게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다음<보기>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으)르 것이다, -(으)르/ㄴ/는 것 같다, -나/ㄴ/은가 보다, -(으)르 수 있다, -겠다

- (1) 이번 경기에 서울 팀이 틀림없이 _____(이기다).
- (2) 눈이 무척 많이 내리고 있어요.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가_____(나다).
- (3) 라디오를 들어보니 눈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고가_____(나다).
- (4) 수민 씨가 내일 생일 파티에 못_____(오다). 너무 기대하지마세요.
- (5) 와우! 이 냉면_____(맛있다).

(2) 학습단계

오류 중심의 문법 교육: 과제 수행 후에, 교사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오류를 보완하고 수정한다.

(1) 눈이 무척 많이 내리고 있어요.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나봐요. → 날 수 있어요.

(2) 와우! 이 냉면 맛있을 수 있다. → 맛있겠어요.

- ▶ 추측 표현의 의미 특성을 교육하기: 설명을 통해 각각 추측 표현의 의미적 정확한 이해 방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첫째, 확실성 정도를 통해 추측 표현 의미의 정확한 이해 방법을 설명:

① {- (으)ㄴ 것이다}

- ▶ 선행용언의 제약이 없으나, 1인칭 주어가 동사와 함께 쓰이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 ▶ 근거를 바탕으로 내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확신의 정도가 높다(상).
- ▶ 확신의 정도가 높아서 ‘틀림없이, 분명히’ 등 부사와 공기하면서 명제에 대한 높은 확신을 나타낸다.
 - ☞ 예문을 통해 연습 활동을 진행한다.
 - 1. 가: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나: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 2. 이번 경기에 서울 팀이 틀림없이 이길 거예요.
 - 3. 우리 선생님이 이 선물을 좋아하실 거예요.

② {- (으)ㄴ 수 있다}

- ▶ 주어의 인칭과 선행용언의 제약 없다.
- ▶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한다.
- ▶ 확실의 정도가 약하다.
- ▶ 문장에서 지각 가능성이나 추론 가능성을 나타내는 추정 부사 ‘-면, 어쩌면’ 등 부사와 공기하면서 명제에 대한 낮은 확신을 나타낸다.
 - ☞ 예문을 통해 연습 활동을 진행한다.
 - 1. 가: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
나: 얼굴을 보니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2. 가: 나오코 씨 피자를 좋아 할까요?

나: 나오코 씨는 다이어트 중이니 안 먹을 수 있다.

3. 눈이 무척 많이 내리고 있어요.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둘째, 판단의 기준을 통해 추측 표현 의미의 정확한 이해 방법을 설명:

① {-(-으)/는/(으)ㄴ것 같다}

▶ 주어인칭 선행용언의 제약이 없다.

▶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느낌을 근거로 추측할 경우, 또는 화자 자신의 내적 상태를 추측할 때 사용되거나 화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 추측할 때도 쓰인다. 확신의 정도가 무표적이다.

▶ ‘-았/었을 것 같다’ 가 ‘-(으)ㄴ것 같다’ 보다 확신의 정도가 약하다.

☞ 예문을 통해 연습 활동을 진행한다.

1. 가: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나: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요.

2. 가: 영희 씨가 요즘 모임에 왜 안 나오지요?

나: 영희 씨는, 요즘 바쁜 것 같아요.

3. 가: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세요.

나: 네, 알겠어요.

② {-겠다}

▶ 현장 지각한 근거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짐작한다.

☞ 예문을 통해 연습 활동을 진행한다.

1. 가: 눈이 많이 오네요.

나: 퇴근길이 많이 막히겠네요.

2. 가: 사무실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나: 오늘 사무실 좀 춥겠네요.

③ {-(-으)ㄴ가/나 보다}

▶ 화자가 보거나 들은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하며 객관적 태도를 지닌다.

▶ 주로 구어체에서 사용함(문어체에서는 ‘-(으)/는/(으)ㄴ 모양이다’ 를 주로 사용함).

☞ 예문을 통해 연습 활동을 진행한다.

1. 가: 떡볶이가 정말 맛있네요!

나: 매운 걸 좋아 하신나 봐요.

2. 가: 교실에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나: 사람 있나 봐요.

(3) 활동

- ▶ 그림을 보고 적절한 추측 양태 표현을 쓰고 대화를 완성한다.
- ▶ 학습 단계에서 학습된 내용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발화하고 교사가 수정 보완하여 준다.

4) 화용적 측면의 교육

한국어와 중국어 양 언어에는 서로에게 대응되는 문법 범주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중국어의 양태 조동사의 문법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육 내용에 반영하여 한다. 모어는 학습자에게 언제나 재생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어와의 대조를 통해 목표어를 설명하는 것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 어떤 교수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사는 해당 문법 범주의 문법적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여 양 언어의 정확한 대조 분석 결과를 학습자에게 인시시켜 목표어의 지식 구조에서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본문의 목표 문법 양태 표현 '-(으)르 수도 있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ESA 모형은 과업 중심 학습에 가까우며 몰입→활동→학습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ESA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단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점에 있다. 따라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의 변인이나 환경적 변인에 따라 각 단계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반복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종적인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제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한 ESA 유형에 사용(use)과 정리(Adjustment)단계를 추가시켜서 몰입, 활동, 학습, 사용, 정리 단계로 한국어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 화용적 측면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1) 몰입단계

절차1: 한국어에서 주어에게 외부적인 어떤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한다.

절차2: 학습자들이 발표한 표현과 빠진 것을 정리하여 목표 항목들을 판서한다.

(2) 활동단계

▶ 교사가 문장을 통해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목표 문법을 노출시킨다.

(1) 가: 교수님 저 다음 시간에 못 들어옵니다.

나: 교수님 저 다음 시간에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가: (눈길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 눈 때문에 길이 정말 미끄럽다!

나: 길이 미끄러운데 운전 이렇게 운전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사 날 수 있어요.

(3) 실례지만 이 펜 좀 쓸 수 있을까요?

(3) 학습단계: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의 화용 기능:

1. 확실한 사실에도 '-(으)르 수 있다'가 사용되면, 완곡함을 나타낸다.

가: 교수님 저 다음 시간에 못 들어옵니다.

나: 교수님 저 다음 시간에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주어에게 외부적인 어떤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할 때 허가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러한 양태 의미로 '-(으)르 수 있다'는 의문문과 부정문에 많이 쓰이고 청자에게 부탁이나 요구, 명령할 때 청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화용적 기능을 한다.

(1) 죄송한데 문을 닫아 줄 수 있을까요?

(2) 실례지만 이 펜 좀 쓸 수 있을까요?

(3) 죄송합니다만 자리 좀 비켜 줄 수 없을까요?

(4) 사용단계:

▷상황을 설정하여 담화 기능 강화 연습한다.

1. 교사가 다음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을 조별로 나누어서 대화를 연습시킨다.

상황1: 선배가 이번 주말에 모임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이 주말에 교회에 가야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2: 눈이 많이 오는 눈길에 선배님이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 그러나 옆에 앉아 있는 당신이 사고가 날 까봐 선배님에게 운전 조심하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2. 교사가 목표 문법 '-(으)르 수 있다'에 관한 심화 내용을 제시한다.

화용적 정보:

▷불확실한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완곡어법으로 사용. 중국어의 "可能"처럼 부정 형식인 '-(으)르 수 없다'의문형을 통해 청자에게 부탁, 요구, 명령 등 지시 화행 실행. 중국어는 "能不能"의 부정형식의 의문형을 통해 같은 화행 기능을 실행한다.

▷'선행 용언의 부정형+(으)르 수 있겠어요?'라는 수사적 의문문 구조를 통해 강제어법의 화용 기능 수행. 중국어에서는 "哪能不"로 실현된다.

(5) 정리단계

- ▶교사는 사용 단계 발표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오류를 수정하여 주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간단한 대화를 시도한다.
- ▶교사는 수업한 내용 중 학생들의 사용에 가장 약했다고 판단되는 표현들을 선별하여 숙제를 내준다.

III.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양태 표현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대표적인 양태 조동사 ‘能’의 통사적과 의미적, 화용적 특징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양태 표현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와 중국어 ‘能’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을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이 양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양태 표현의 개념과 하위분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 표현에 대한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본고의 연구 대상인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는 ‘양태’의 하위 범주이며 그중에서도 인식 양태 안에 포함된 범주임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양태 표현의 양상에 대한 내용도 고찰함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양태 표현은 음운론적 요소, 어휘적 요소, 문체적 요소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라센프리먼(Larsen-Freeman)의 ‘삼차원의 문법 틀’을 기준으로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와 대표적인 중국어 양태 조동사 ‘能’을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대조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태 표현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태 표현의 통사적 특징과 제약을 파악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PPP모형에 의한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의 통사적 측면의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고,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이해하고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을 구분하기 위해 ESA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런 다음, 상기한 ESA 유형에 사용(use)과 정리(Adjustment)단계를 추가시켜서 몰입, 활동, 학습, 사용, 정리 단계로 한국어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 화용적 측면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논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태 표현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추후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어 양태 표현 항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어 양태 표현 교육·학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탑출판사.
- 권낙연 역(2010). **수업모형**.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만(2005).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출판.
- 문병열(2006). **한국어 보문 구성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덕유(1998). **국어의 동사상 연구**. 한국문화사.
- 박덕유(2002). **文法教育의 탐구**. 한국문화사.
- 박덕유(2013). **한국어 문법의 이론과 실제**. 박문사.
- 박재연(2003). **국어 양태의 화·청자 지향성과 주어 지향성**. 국어학회.
- 서정수(1995).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손옥정(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가능성’ 표현 대조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선은희(2003). **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6). **-르 수 있다-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언어문학회.
- 엄 너(2010). **한국어 양태 표현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이 영(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양태 표현의 태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박이정.
-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317-339.
- 이성범(2015). **소통의 화용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화용적 접근**. 한국문화사.
-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이혜용(2003). **짐작·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효정(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태 표현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115-147.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211-249.
- 임지룡(2005). **인지 의미론**. 탑출판사.
- 장경희(1985). **현대 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탑출판사.
- 최윤곤(2010). **한국어 문법 교육과 한국어 표현범주**. 한국문화사.
- 丁聲樹(1961).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 賀 陽(1992). **試論漢語書面語的語氣系統**. 中國人民大學學報. 1992年05期.
- 胡裕树(1981). **动词研究**. 河南大学出版社.
- 馬慶株(1992).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彭利贞(2005). 現代漢語情態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宋永圭(2004). 現代漢語情態動詞“能”的否定研究. 旦大學博士學位論文.
- 温锁林(2001). 現代漢語語用平面研究. 北京圖書館出版社.
- Bybee, J. L.(1994).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M]. London: Allen and Unwin.
- Martin R (1987) "Langage et croyance", Pierre Mardaga, 189.
- Palmer F. R(1979).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M]. New York:Longman.
- Palmer, F. R(2001). *Mood and Modality*,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rsen-Freeman. D.(2003). *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aring*, Thomson.
- Lyons(1977). *Semantics*. Car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ohn(1983). *Semantics* vol2. Cambridge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Modality Expressions

Fei Jiang

Shandong Technology and Business University

Modality is the psychological attitude of the speaker, which is comprised by the sentences used in every language. Modality can be broadly categorized as perceptual modality and obligatory modality. This study summarizes the previous related literatures and theoretical branches of Korean linguistic studies. The study also proposes and classifies a modal concept on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aimed at aiding Chinese people who are studying Korean. It further describes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s of modality in both the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effective teaching-learning program on the basis of the contrastive analysis between Korean language's modality, “-(으)ㄴ 수 있다,” and the corresponding Chinese auxiliary verb, “能.” Modality is a syntax item that reflects a speaker's subjective manner. There are many grammatical facets in Korean language books and teaching materials that are modal in nature. Further, modalities in Korean language are not only numerous but also have very rich meanings and functions. Based on the contrastive analysis, this study designs an effective teaching plan for Chinese peopl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e designed system uses specific conversational occasions as the basis of learning, and it adapts the Korean language's modal system to classroom teaching. The system is expected to be effective during classroom teaching for demonstrating and learning modality in the Korean language.

Key words: modality, psychological attitude, grammatical items, teaching model

논문투고일자: 2019.1.16.

논문심사일자: 2019.4.18.

게재확정일자: 2019.4.23.